

석유화학 첨단설비 중국수출 부상

중국, 첨단 장비·부품 수입관세 면제키로 ... 연구개발 재투자 유도

중국은 장비제조업 발전을 위해 첨단장비·부품 수입기업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.

중국 신화통신은 2월9일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해관총서, 국가세무총국 등 4개 부처가 세금우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.

중국은 첨단장비·부품 수입기업들에 대해 환급해주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토록 유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.

세제혜택을 받는 분야는 환경친화적 발전장비와 석유화학설비, 선박 및 해양공정 설비, 고속열차 및 신형 지하철 차량, 집적회로 부품 등 모두 16개이다.

이에 따라 해당 부품 제조기업들의 중국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중국기업들은 경쟁력과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중국 재 정부는 수입기업들의 세금 환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다른 용도 등으로 불법 사용하면 처벌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2/09>